

철학사

24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자, 그럼 다시 한번, 금요일인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을 소개할 때 나눴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 보죠.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시겠지만,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최고이자 최종적인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한 방식에는 이슬람 신학뿐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절대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불멸성 등에 관한 문제들. 아베로에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중적 진리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주장을 펼쳤다. 즉, 종교적 신념, 신앙의 진리는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철학적 진리는 더욱 이론적으로, 더욱 정확하게 공식화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기독교 사상가들뿐 아니라 다른 이슬람 사상가들에게도 분명히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대표하는 인물은 보나벤투라였는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완전히 거부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처럼 플라톤주의를 계승하여 자신만의 복잡한 방식으로 그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그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 비추어 적절한 수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형상들을 통해 로고스 교리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개별 본성을 알고 창조하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불멸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토요일 아침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마켓 대학교의 로널드 핀스트라 교수를 보셨을 텐데, 그는 내년에 칼빈 신학교로 옮길 예정입니다. 칼빈 신학교에서는 철학적 신학을 포함한 신학 박사 과정을 새로 시작하는데, 핀스트라 교수가 그곳에서 철학적 신학을 가르칠 것입니다.

페인스트라라는 이름을 보면 그는 분명 네덜란드 사람일 겁니다. 로널드 페인스트라는 지난 토요일 아침 논문에 대한 답변에서 중세 기독교 사상가들이 자신들이 만족하고 확신하는 확립된 신학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 신학적 입장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기존의 철학적 입장을 수정해 나갔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과정이 중세 사상의 특징 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거의 모든 철학자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학 같은 것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그 세계관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철학적 입장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철학을 완전히 중립적이고 전제주의적 이라고 보는 관점은, 과학을 전제주의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나 다른 어떤 관점만큼이나 역사적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기독교 신학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주처럼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신이 본질, 만물의 형상, 보편자가 아니라, 신의 본질은 존재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신은 바로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개념은 질서, 선, 아름다움, 이해의 근원이었지, 존재 자체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유신론적 관점에서든 신은 질서와 선뿐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자면 창조의 형이상학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창조 교리는 형이상학에 대한 주요 신학적 입력 요소가 될 것이며, 제가 바로 이번 주말 토요일 밤에 살펴본 형이상학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 논문은 현대 과학 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비교하여 창조에 대한 형이상학적 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

그런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교부들로부터 전해진 로고스 교리를 자신의 관점에 접목시켰는데, 이는 형상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사물에 대한 원형, 즉 본보기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초적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태가 없는 원초적 물질인 *materia prima*와 지정된 물질인 *materia signata*를 구분하십니다.

이미 형태가 규정된 물질, 즉 어떤 종류의 물질. 원초적 물질이라는 개념은 순수한 잠재력, 순수한 가능성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원초적 물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태를 아시기에 모든 가능성을 아시며, 따라서 순수한 가능성이란 어떤 것인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초적 물질, 심지어 그러한 창조를 위한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원초적 물질까지도 아십니다. 따라서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은 존재 하지 않지만 존재의 잠재력만을 가진 것에 실체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형태가 존재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존재를 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태와 물질의 결합에 존재의 행위, 즉 실체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형태의 물질에 대한 잠재력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고유한 본성, 즉 목적, 즉 근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 전체의 위계질서 안에서 궁극적인 목적,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본받고 영화롭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개별적인 존재는 각자의 특정한 방식으로, 전체의 선함에 부합하는 정도와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창조 행위, 즉 창조의 목적, 즉 텔로스는 모든 피조물의 개별적인 본성에 대한 이론,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본성을 아신다는 이론, 때로는 실체적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문헌에서 종종 설명 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체적 형상이란 물질과 함께 특정한 실체를 구성하는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처럼, 형상은 언제나 특정한 실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실체적 형상이다. 특정한 실체 안에 내재된 실체적 형상들을 제외하면, 형상들은 단순히 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적 관념일 뿐이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존재 행위 덕분에,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원형들에 대응하는 실체적 형상들이 생겨나고, 이 형상들이 창조된 사물들에게 그들이 가진 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내재적 형상이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형적 관념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종의 형상이면서도, 개별적인 창조 행위와 잠재력의 실현 등을 통해 개별화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물질을 부정적인 관점, 즉 결핍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태도는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물질에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독교적 목적에 맞게 그리스 형이상학을 변형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대한 이 요약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선집 말미에 있는 '자연 원리'라는 짧은 글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개요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용어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잠재력과 실제, 또는 가능성과 현실성이라는 용어 말입니다. 가능성이란 무엇일까요? 네, 원초적 물질은 실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세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대를 이루는 데, 사물이 생겨나고 생성되는 데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물질은 잠재적 존재이다. 형태는 물질이 실체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이다. 그리고 결핍, 즉 실체적 존재의 부재는 생성에 앞서 나타나는 상태이다.

존재의 생성, 즉 탄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결핍, 무언가가 생겨나야 할 필요성, 잠재력, 즉 근원 물질입니다.

형태,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체적 존재를 제외하면,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물질이나 잠재력 그 자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에 구현된 형태를 제외하고는 순수한 형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행위가 생명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로부터 창조를 이루는 것이라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에 관해 지적하고 있으며, 그 에세이에서도 네 가지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조의 네 가지 원인 중 능동적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형식적 원인은 신적 로고스, 즉 신적 이성이시며, 목적적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신의 본보기이십니다.

물질적 원인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 그래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의 목적 지향적인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원인이 필요합니다. 즉, 텔로스(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원인, 즉 목적 의식 자체가 어떻게 사물 안에 내재된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형상들을 통해 설명됩니다 . 형상들은 그 잠재력이 굴복하게 될 목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맞죠?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세 개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허상일 뿐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서 진정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겠어요? 원초적 물질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이에요 .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특정한 것들만이 존재하고 , 원초적 물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그것을 생각한다고 여길 수 있다. 신은 온갖 종류의 실체적 존재로 이루어진 시공간 세계를 생각한다. 원초적 물질, 근원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할 수는 있지만 ,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형태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를 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태만 존재한다고요? 네, 만약 형태만 존재한다면 그는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자겠죠. 이 비물질적인 실체들, 그것이 존재하는 전부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자야. 아니, 그는 현실주의자야. 물질적 실재에 대한 현실주의자 말이지.

그리고 그는 이런 질료형 복합재료를 원해요. 학회에서 '질료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들으셨어요? 확실히 그랬어요. 그는 이런 질료형 복합재료를 원해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아무것도 더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음, 형태는 무언가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물질도 무언가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의 가능성, 물질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합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하신다면, 생식 과정에서 비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자나 난자에는 새로운 유전적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만날 때 비로소 새로운 유전적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물질 속에는 존재가 없고, 형태 속에도 존재가 없다. 형태와 물질이 만날 때 비로소 실제적인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다.

자, 당신은 정자와 난자가 창조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네, 바로 그것이 창조가 독특한 이유입니다. 창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생성 방식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간 형태를 거치지 않고, 신, 즉 최고의 형상에서 개별 인간에게 직접 도달하려고 한다는 뜻인가요?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할 때 문제점 중 하나는 그가 수많은 중개자를, 아마 백 명쯤 되는 중개자를 통해 신을 심판하려 했다는 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중개자를 통해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사 이론에는 중개자가 존재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위계질서에는 다른 비물질적 존재, 또는 그가 저서에서 '비합성 실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것은 선을 향해야 한다고, 별과 행성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요. 네,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죠.

사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늘의 궤도를 따라 떠다니며 별들을 인도하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우주론에서 그런 견해가 나왔지만, 저는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직접적인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점을 상당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은 능동적 원인이지, 어떤 중간적인 능동적 원인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그의 형이상학에 담긴 아리스토텔레스적 차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신이 모든 가능한 형상의 조합을 알기 때문에 개개인을 안다고

말하는 건가요? 네, 보나벤투라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퀴나스는 신이 물질의 모든 잠재력을 안다고 표현한 것이죠 .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 그렇다면 신은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력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네, 신은 인간 본성이 다양한 물질, 물질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화되어 당신과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에도 신이 형상, 즉 원형을 통해 개인을 안다는 내용이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베로이스 학파에 대한 반박으로 쓴 그의 저서 『신학대전』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는 이성과 계시, 신앙과 이성입니다. 만약 아퀴나스를 처음 읽으시는 분이라면, 『신학대전』에서 그가 사용하는 방법론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질문들 안에는 제1조, 제2조, 제3조, 그리고 세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각 글은 반론 제기로 시작하여,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 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개하며 반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반론 1에 대한 반박, 반론 2에 대한 반박, 반론 3에 대한 반박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글의 형식은 에세이나 강의라기보다는 토론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중세 대학에서 교육은 토론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토론 지침서입니다. 따라서 내용이 매우 압축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단어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

그는 중간중간에 수많은 삽화를 넣지 않습니다. 내용이 응축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처드 크로너는 그것이 존경심과 피로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꼼꼼하면서도 지루하고, 경외로우면서도 현학적이며, 매혹적이면서도 따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학회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아마도 그 학회가 중세 시대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 제가 이 슬라이드에 띄워 놓으면, 그의 요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 이시죠 . 여기서 자연적 이성이란 , 특별한 계시라는 추가적인 도움 없이 사용하는 이성을 말합니다 .

특별 계시라는 용어는 물론 성경, 그리스도의 오심 등을 가리킵니다. 자연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의 정도 또한 다양합니다.

존재의 위계질서의 일부. 단계적인 위계질서. 우리는 모두 이성적인 존재이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성의 단계적 차이는 우리의 유한성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점 중 하나는 우리가 신에 대해 아는 것의 상당 부분이 유추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의적 서술과 유추적 서술을 구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유추를 통해 말하자면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신이 읽고 있는 자연 원리에 관한 글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을 다른 인격체에 비유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사물의 선함에 비유하여 신의 선함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 이성의 한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 이성의 한계가 죄성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인간의 이성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도덕적인 닮음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도덕적인 닮음입니다.

도덕적 유사성. 그러므로 타락, 즉 그 도덕적 유사성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타락은 인간의 이성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결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사물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랑에 의해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 영혼의 도덕적 상태는 간접적으로 신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기에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이성은 유한성과 타락성이라는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벤, 네, 배리. 프랜시스 웨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발언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성, 즉 합리적인 것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한 아퀴나스를 비판합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형상과 닮음의 차이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은 형상이 아니라 닮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상, 아니, 다시 말해 형상의 작용, 결론의 수용, 그리고 이성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웨퍼의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옳았지만,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질문,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니다 . 사실, 저는 그가 최근의 변증가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이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접근 방식을 보면, 그가 이성에 대해 가졌던 확신의 정도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

흥미롭네요. 덧붙여 말하자면, 일부 개신교도들이 신앙과 이성에 관한 문제로 토마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토마스 그 자체보다는 종교개혁 이후 후기 스콜라 철학, 특히 계몽주의 시대의 토마스주의자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밥 로버츠의 처남이자 웨스턴 켄터키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아르빈드 보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칼빈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들의 신앙과 이성, 이성과 계시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아퀴나스의 이성, 신앙, 이성에 대한 견해가 본질적으로 존 칼빈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에르드만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니, 원하시면 나중에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이성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이성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이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계시에서도 선언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성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성적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제의 심오함 때문에, 또는 그가 말했듯 이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유혹 때문에. 셋째, 의지력의 약함 때문에, 즉 의지력의 약함이 죄가 도덕적 본성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의지력의 약함이 지성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의 약함이 지성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말입니다.

결론 까지 따를 의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자, 세 번째로, 이성 또한 선언합니다. 음, 어디 보자, 계시록, 죄송합니다만, 계시록은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삼위일체 교리나 성육신 교리 같은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토마스가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이고, 계시록이 거기서 만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더 정확한 해석은 계시록이 거기서 만나고, 이성은 그 뒤를 따라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대중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의 진리, 즉 요한계시록의 진리들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진리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이성으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거와 논증을 통해 그러한 믿음이 적어도 합리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신앙 진리의 합리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없고, 자기모순도 없으며, 등등,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철학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작업입니다. 토요일 오전

수업에서 기말 논문을 끝까지 보셨다면, 토마스, 둔스 스코투스, 오컴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성이 합리적인 확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드시 증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이상학적 틀 안에서 그것이 합리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둔스 스코투스와 윌리엄 오브 오컴이 기꺼이 주장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계시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예시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성인 신앙의 진리를 불완전하게 이해할 뿐입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은 신학을 하죠. 불완전한 이해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신앙과 이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분명히 이중적 진실이라는 주장에 대한 그의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시 아베로에스가 해왔던 일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던 거죠. 시간이 초과 되어 죄송합니다 .